

2014년 3월 15일 한외사연구회 이헌미

◎ 김대식 편저, 『삼국유사 그 다양한 스펙트럼』 (대원사, 2007)

◎ 이재호 옮김, 『삼국유사』 (솔, 1997)

I. 배경 지식

● 저자 일연(1206-1289)

● 찬술시기 13세기 후반(1249-1283년 사이로 추정)

●삼국유사 판본: 일연의 초고를 수제자 무극이 보완한 것의 필사본 유통, 태조 3년(1394) 최초로 판각, 중종 7년(1512) 임신본이 현전

●전거 인용사서: 삼국사기, 고기, 지리지(백제), 고전기(古典記), 후한서, 위서, 북사, 통전, 구당서, 신당서

●편제: 5권 9편 (王曆-紀異-塔像-義解-神呪-感通-避隱-孝善)

역사편	왕력, 기이
불교편	흥법, 답상, 의해, 신주, 감통, 피은, 효선

=> 양梁나라 『고승전』에 의해, 신이/ 당나라 『고승전』에 의해, 호법(護法), 감통, 흥법興法 등 유사한 편제가 보임

II. 삼국유사의 의의

(1) 고대의 신화전설을 원형 그대로 보존: 정사(삼국사기)에 대한 신화적, 민간설화적 보완

-탄괴(誕怪)함에서 고사의 원형을 찾을 수 있음 (*최남선, 『삼국유사해제』)

-“신이한 이야기들이 고대사회의 본질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이기백, 『한국고전연구』, 일조각, 2004)

(2) 한국고대사의 체계화: 기자조선 제외, 『삼국사기』에 없는 고조선-마한, 5가야(가락국)

(고조선, 위만조선, 마한, 진한, 변한, 발해, 5가야, 북부여, 고구려, 신라, 백제, 가락국의 건국 시말)

(3) 고대 왕권 사상

● <고조선>조에서 <김알지 탈해왕 대>조, 건국시조 혹은 왕의 출생에 천제, 천이 개입 (천강, 난생, 혼인, 등극의 4대 신화소)

● 삼국유사의 ‘천자(天子)’ 칭호와 ‘붕(崩)’자 용례 (cf. 제후 흥薨, 귀인 졸卒)

① 고조선 단군, 고구려 시조 동명왕, 신라 시조 혁거세왕, 가락국 시조 수로왕=>천자

② 「기이편」 신라 4대 탈해왕~56대 경순왕, 백제 구수왕, 가락국 2대 거등왕~9대 겸지왕 ‘붕’ (*이재호, 『삼국유사』 해제)

(4) 고대 한중관계의 해석학적 단초

- 삼국사기, 위서, 당서 등과의 내용비교, 보완 추정

● 『답상』편, 황룡사 9층탑조: 자장이 당나라 유학 중 만난 신인(神人)과의 문답

“자장이 이르기를 우리나라가 북으로는 말갈이 있고 남으로 왜인이 있으며 고구려·백제 두 나라는 변경을 서로 침범하고 이웃 도적들이 일어나서 백성의 고통이 된다 하였다.”

“신라 제27대에 여자가 임금이 되매 도는 있어도 위엄이 없어서 구한九韓이 침노하니 만일 용궁남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우면 인국의 재해를 막을 것이라 하니, 제1층은 일본이요 제2층은 중화中華요 제3층은 오월吳越이요 제4층은 탁라托羅요 제 5층은 응유鷹遊요 제6층은 말갈이요 제7층은 단국丹國이요 제8층은 여적女狄이요 제9층은 예맥濊貊이라 하였다.”

III. <기이편 하> 주요내용

문무왕 법민

-“사비의 남쪽 바다 가운데 여자의 시체가 있었으니 신장이 73척이나 되고...”

=> 길조로 해석: 시체가 바닷물에 빠졌으니 일단 다행한 일. 그 대신 바다가 어지러워질 가능성. 그러나 당나라 침략군이 명랑법사의 문두루 비법에 의해 크게 두 차례나 수몰되었으므로 음우의 요기도 중화, 신라 바다 태평. (*조수학, “문무왕 법민조의 거시조 연구”, 1983)

-당나라 유학승 의상의 첩보, 중재 역할

“(당나라) 고종이 인문(김인문) 등을 불러...옥에 가두고 군사 50만을 조련하여 설방으로 장수를 삼아서 신라를 치려 하니 이때 의상사가 서으로 당나라에 가서 배울새 인문을 찾았더니 인문이 사유를 말하고/ 의상은 곧 돌아와서 임금에게 알리니”

“본국 승상 김흠순(혹은 인문이라 한다).양도 등이 당나라에 갔다가 가쳤더니 고종이 장차 크게 군사를 일으켜 동쪽으로 치라고 하거늘 흠순 등이 가만히 의상을 보내어 먼저 가도록 달래어 함형 원년 경오(670)에 나라로 돌아왔었다.”

-불교 밀교 종파 신인종(神印宗)의 왕실보위, 승군의 국방기능

-축성과 병비(남산에 곡식과 병기 두는 장창長倉 설치)에 힘씀

만파식적

-아버지 문무왕대 시작한 감은사 완공, 해방(海防)의 의미

“대왕의 아버님께서 지금 바다의 용이 되시어 삼한을 진호하시고”

효성왕

-개원(당나라 연호 사용). 722년 경주에 왜적 방비 요새 관문(關文) 건립

-733년 당이 북적(北狄=발해) 치려고 신라에 출병 요청

경덕왕과 충담사.표훈대덕

-아들을 낳아 왕위승계 안정시키려 한 경덕왕, 불길한 천제의 예언

-그 아들 혜공왕은 게이? (“왕은 여자로서 남자가 되었으므로...”)/ 내란

@ 삼국사기 혜공왕

- 여덟살에 즉위, 태후가 대리정무

-즉위 4년차(768)에야 당 대종이 책왕. 왕의 어머니 김씨는 대비로 책봉. 9월에 견사입당조공.
-모반이 잦았음. 결국 780년 왕과 왕비가 살해. 772, 773 조공. 774, 775 년 2회 조공. 776
년 3회 조공.

#원성대왕

-아버지로부터 받은 만파식적 덕에 786년 일본이 신라를 치러다가 그만둠
-795년 당 사자가 서울에서 한 달간 머무름, “당나라의 사자가 하서국 사람 둘을 데리고 와서
호국용을 작은 고기로 바꾸어 통 속에 넣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왕이 쫓아가서 받아냄. 당
나라 사자는 왕의 명철함에 감복
==> 원성왕의 외교술?
- 사미승 묘정의 당나라 사행. 황제가 묘정의 구슬을 빼앗자 묘정은 매력 상실.
==> 당과 신라 관계 소원해짐?
@ 삼국사기 원성왕
-2년(786) 입당조공. 당 덕종의 조서 “신라왕 김경신에게 칙유...나금, 능채 등 서른필과 옷
한 벌, 은술통 한 개를 주니, 이르거든 마땅히 받을 일.” 성덕왕과 현종의 교유를 생각할 때
대접이 형편없이 박함. 조공횟수도 눈에 띄게 감소
-790년 북국(=발해)에 견사
-792년 당나라에 사신 보내 미녀 김정란을 바침

#처용랑과 망해사

-49대 헌강대왕 때 개운포(=경남 울주)에서 동해 용의 아들 처용을 얻음, 영취산(=울산)에 용
을 위하여 절을 지음 ==> 해방 튼튼, 일본과 외교라인 순조
@삼국사기 헌강왕
-879년 일본 사신 만남, 882년 일본이 사신을 보내어 황금 3백냥과 야광주 열 개 바침

#진성여왕과 거타지

-왕의 막내아들이 당에 사신 갈 때 후백제가 진도에서 길을 막음. 궁수 50명. 풍랑으로 곡도
(鵠道=骨大島)에서 만난 노인(서쪽바다의 신)을 도와주고(다라니경을 외우는 중; 늙은 여우),
두 용의 호위를 받아 당나라 무사 도착
==> 주요 공격무기는 활. 장거리 항해기술 부족. 후고구려 or 후백제의 침략을 받는 섬 지방
정권을 도와주고 그 배를 타고 당으로?
@ 삼국사기 진성왕: 891년 궁예, 복원과 명주 관내 주천 등 10여개 군.현 습격
892년 완산주의 도적 견훤이 후백제 건국. 무주의 동남쪽 군.현이 항복하여 예속.

#김부대왕 (경순왕)

-신라에 대한 사론(史論): “성심껏 중국을 섬겨 육로 해로로 조빙하는 사신이 서로 잇달아 끊
어지지 않았다.(以至誠事中國 梯航朝聘之使) 늘 자제를 보내어 당나라 서울에 가서 숙위케 하
고 국학에 들여보내 강습시켰다. 이로써 성현의 풍습과 교화를 입어 미개한 풍속을 변혁시켜
예의의 나라로 만들었으며 또한 당나라의 군대의 위엄을 빌려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고, 그
땅을 얻어 군현으로”

후백제(892-936)의 견훤

-고려와 후백제의 대립: 동광3(925)년 12월, 견훤은 후당에 입조 칭번, 책봉
 -926년 견훤, 고려 태조에 서신: 오월국 사신이 조서를 전해서, 화친하도록 권고했음을 언급
 -천성 2(927)년 태조 답서(by 최치원): 고려도 오월국 조서를 받았음. 그러나 견훤 불신.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는데 천명이 어디로 돌아가겠소! 하물며 오월왕 전하는 덕이 먼 지역 먼 지역을 포섭하고 인은 소국을 애무해오던 바(天之所助 命欲何歸 況承吳越王殿下 德洽包荒 仁深字小), 특히 대궐에서 조서를 내려 동방에서 난리를 그치기를 개유하시니 어찌 받들지 않겠소.”

#가락국기

-개벽신화, 구지가(‘구지’는 후한의 북쪽 산 이름)
 -탈해와 수로왕의 왕위 다툼: 완하국(玩夏國: 중국 배를 타고 떠났으므로 중국으로 추정) 출신 탈해와 싸워 수로왕 승리. 탈해는 계림으로 도망. 신라쪽 기사와는 많이 다름.
 -건무 24(48)년, 수로왕 아유타국(中인도의 고대왕국. 대당서역기에 등장) 공주와 혼인

통일신라 이후 한중 상황	
중국	한국
	660 백제 나당연합군에 멸망
	668 고구려 나당연합군에 멸망
	670-676 나당 전쟁, 삼국통일
	698 발해 건국
907 당 멸망, 후양/오/오월/전촉/초 건국	733 나당연합군, 발해 공격,
916 거란 통일, 916 거란 건국	926 거란의 발해 멸망
923~936 후양~후당~후진 건국	936 고려 건국
937 거란 遼로 국호 개칭	942 고려 태조, 거란 사신 굶겨죽임
947-960 후진~후한~후주~송	<u>963 송 연호 사용 시작</u>
1206 칭기즈칸의 몽고통일	993-1018 거란 3차례 침입
1210-53 西遼, 西夏, 金 멸망	1219 고려-몽고-동진국 연합군, 강동성 거란 격멸
1271 몽고 元으로 국호 개칭	<u>1231-55년 몽고 5차례 침략</u>
1279 남송 멸망	<u>1259 몽고에 항복, 태자 인질로 감</u>
1284 몽고, 베트남.창파 정벌	<u>1264 고려 원종 충경왕, 연경에 입조</u>
	1274 여진-몽고 연합군 일본정벌, 실패,
	1281 몽고-고려 일본정벌, 태풍으로 실패
	1370 명 연호 사용 시작
	1392 조선 건국